

2007 하반기, 문화펀드 어떨까요?



“누구는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라는 말이 무용담처럼 증권사 객장을 넘어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에게까지 들려 ‘나도 투자해야하는 거 아니?’ 라는 생각에 고개를 가웃거리게 되고 ‘펀드’ 라는 걸 하나쯤 안 가지고 있으면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경제인의 ‘기본’ 도 안 된 사람으로 오해받기 딱 좋은 시절이다. 펀드 계좌수도 지난 6월 1500만 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렇다면 펀드, 무엇이 좋을까? 전문가들은 무엇이 좋을 지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곧 말하는 게 ‘장기 투자’ 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펀드에 투자할까? 당연히 수익을 올려 돈을 벌기 위해서다.

수익성 + 공익성 ‘사회책임투자형 펀드’

여기에 한가지 문제. 가입한 펀드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투자되는 기업이 악덕 고용을 하고 어린이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투자금을 당장 거둔진 않더라도 이를 꺼림칙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책임투자(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형 펀드다. 윤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지배구조가 모범적인 우량회사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는 SRI펀드는 투자수익과 자본의 사회적 책임, 즉 공익적인 부분까지 아우른다. 그래서 고수익과 공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 를 잡는 펀드로 통용되고 있다.

이 펀드는 투자기업을 고를 때 수익성 뿐만 아니라 친환경경영, 사회공헌사업, 윤리경영 및 법규준수, 인적자원개발 등 사회적인 책임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판매 및 운용보수의 1.7%는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한다. 국내에서 사회책임투자펀드는 2005년 일명 ‘착한 펀드’ 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됐다. 현재 5개 운용사에서 운용 중이며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총 설정액이 1천600억 원을 겨우 넘길 정도로 국내 사회책임 펀드 시장은 걸음마 단계지만, 수익률은 ‘소리없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농협CA운용의 펀드의 경우 연초 이후 38.08%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5개 운용사의 성장형SRI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34.48%으로 일반주식 성장형 펀드의 35.95%와 비슷한 수준이다.

예술작품이 자산으로 변신한다, 특별자산펀드

대학 기숙사, 선박, 고철, 태양광 에너지, 부동산, 드라마, 항공기, 미술품, 한우, 삼겹살 등 다종다양한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인기도 꾸준하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판매한 80억원 규모의 PB고객 전용 사모 아트펀드는 하루만에 다 팔렸을 정도다. 그러나 사모펀드를 기관투자자와 고액자산가 등 소수에만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다 쓸쓸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일반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007년 1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는 ‘아트펀드 스타작가전’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이 전시는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처럼 미술품에 투자하는 스타아트펀드 측이 투자 대상으로 지목한 일명 ‘블루칩 작가’ 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색다른 기획전이였다. 스타아트펀드는 국내 아트펀드 2호로 골드브릿지자산운용이 운용하고 한국미술 투자와 아트투자유한회사가 주관한다. 이러한 아트펀드는 세계금융시장이 주목하는 금융상품이며 근래 국내 미술 시장이 살아나면서 후속 펀드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트펀드는 미술품을 구입해 가치가 오른 뒤 되팔아 올린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인데 이번 신세계 아트페어는 투자대상으로 지목한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산업은행은 올해안에 분야별

100억 이상의 문화컨텐츠 투자

펀드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차세대

주요 산업으로 떠오르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영상·드라마

· 미술 펀드를 만들고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도 확대한다고 지난 5월 29일 밝힌 바 있다. 산은은 시장

조사 및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영화산업에 투자하는 영상펀드, 한류문화의 지속발전을 위한 드라마펀드, 신진 유망 미술작가 육성과 국내작가의 해외진출을 위한 미술펀드의 결성을 추진한다. 산은은 이들 펀드를 각각 10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문화펀드와 개성만점 통장

은행권의 문화펀드 투자도 눈에 띈다. 우선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주몽’에 첫 투자가 이루어졌던 드라마펀드에 50억 원을 투자한 우리은행을 들 수 있다. 드라마 펀드는 자금을 드라마 제작비로 투입한 뒤 관련 판매와 관련 음반, 캐릭터, 간접광고(PPL) 등에서 수익을 거둬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운용된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은 뮤지컬 공연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최우량 고객들에게 판매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것은 당시 정기예금 수익률을 웃돌아 고객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러시아 현지에서 공연하는 ‘태양이라 불리는 별’에 투자하는 ‘뮤지컬 펀드 2호’를 시판했다. 러시아의 국민가수였던 한인 출신 빅토르 최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로 펀드 판매 일주일만에 12억 원여치가 모두 소진됐다.

요즘 와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로 KB 국민은행은 ‘WINE정기예금’ 상품을 내놓았다. 이 통장은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45~64세의 소위 ‘와인 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이 세대의 금융 수요와 건강에 대한 관심 등을 반영, 금연 또는 규칙적인 운동을 다짐하면 우대금리를 주고 365일 건강상담이 가능한 헬스케어서비스 등 중·장년층 고객들의 이용도가 높은 부가서비스를 결합시킨 게 인기 비결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광주문화수도 후원 및 홍보를 통해 지역은행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공헌형 상품판매를 통해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위한 성금을 출연하기 위해 「광주문화수도 후원통장」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0.05%를 광주문화수도 후원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수익도 올리고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는 여러 투자처. 그런데 재테크는 고사하고 쓸 돈도 없다고? 통장에 쓰려고 둔 10만 원이 있다면 눈 딱 감고 증권사나 은행에 펀드계좌를 만들어보자. 돈은, 있는 만큼 쓰게 돼있다.